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넘실넘실 떠다니는

내 안의 여러 마음(감정)



놀람



비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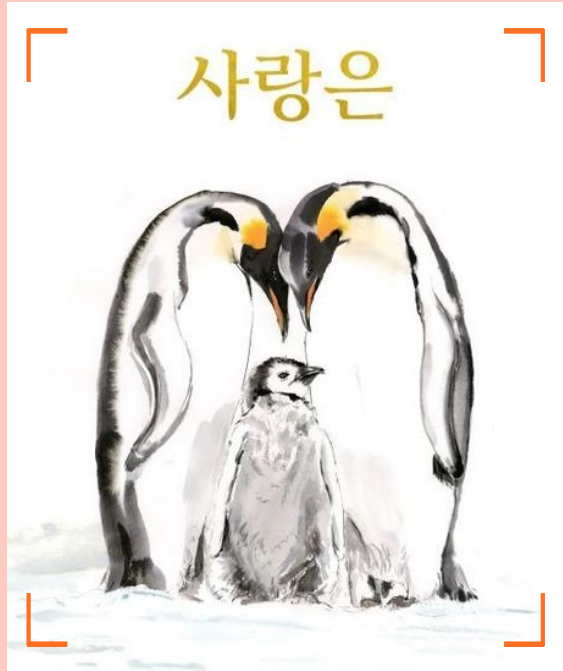
슬픔



화남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Seongju Public Library



사랑은

릴리 머레이

청구기호: 유 843 머233ㅅ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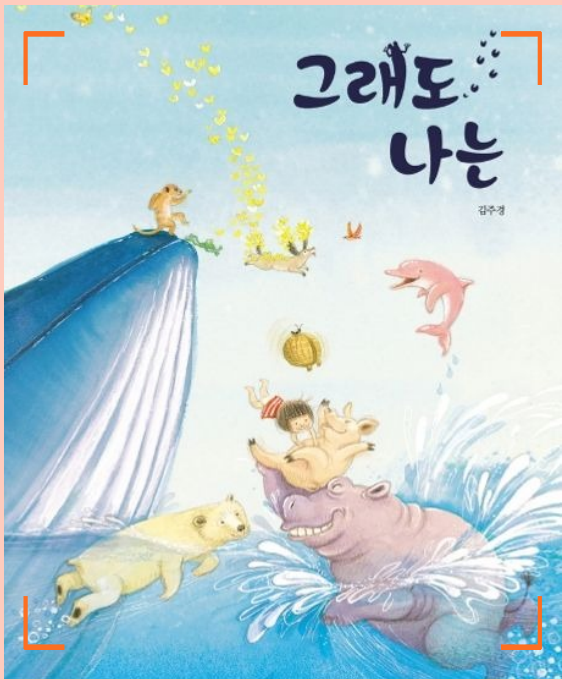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섬세한 그림체를 가진 메이콧 작가가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과 특징을 포착하여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예쁘고, 기쁘거나 숭고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고, 강렬하고, 부드럽다는 모든 표현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랑의 다양한 얼굴 아닐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동물의 모습을 보며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이 책과 함께 느껴보세요.

출처: 교보문고





그래도 나는

김주경

청구기호: 유 813.8 김77ㄱ

기뻐도, 슬퍼도, 속상해도, 화가 나도, 나는 언제나 그대로 나!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는 법이 어려운 아이들은 "오늘 기분이 어때"라는 물음에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매일매일 다양한 감정을 겪고 복잡다단한 경험을 하고 있지요.

나의 기분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 책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감정 상태를 동물로 보여주고 어떤 기분을 표현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나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연계도서 - 누리과정 5월 나, 가족

- 2학년 1학기 국어 8. 마음을 짐작해요
- 2학년 1학기 통합(봄2) 1. 알쏭달쏭 나

출처: 교보문고





슬픔을 만난 개

루파 브리에테

청구기호: 아 892.7 브239ㅅ



깊은 슬픔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운 슬픔에 사로잡힌 어느 날, 외롭고 버림받은 것들이 검은 슬픔을 마구 쏟아내고 세상은 한없는 절망과 슬픔에 잠깁니다. 색과 향기를 잃은 장미덤불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눈물을 쫓아 지붕 위로 올라가고 힘을 다해 검은 구름의 문을 두드리자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점점 커진 구멍으로 슬픔의 눈물이 흘러 온몸이 젖은 개는 방수 모자로 배를 만들어 눈물의 바다를 향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앉아 있는 수많은 슬픔을 만나고 세상이 그토록 검고 축축한 눈물과 잿빛 연기로 가득 찼던 것은 슬픔들이 흘린 어둡고 따뜻한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깊은 슬픔에 잠긴 세상에서 빛과 향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북 아트 상, 2018년 골든애플어워즈 수상작

출처: 교보문고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청구기호: 아 183.2 마48ㅁ

고민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나고 후련한 초등인생상담

요즘은 어린이도 부모님과 관계, 친구 관계, 공부 때문에, 게임, 심지어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힘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 몰라 다짜고짜 화를 내고 폭력적이 되거나, 반대로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 월간지 <마음꽃>에 실린 고민 상담 꼭지를 모으고 새롭게 다듬어 낸 책입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생들이 보내온 고민에 글쓴이인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도움을 준 상담 모음집이지요.

어린이의 시선이 아닌 아이들의 언어로 고민을 마주하며 모색한 해결책이기에 더욱 생생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교보문고



책 속으로

혹시 나침반 본 적 있어?

나침반 바늘은 늘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바뀔 때마다 한참을 흔들린 뒤에야 정확하게 방향을 가
리켜.

꿈이 없어서 생긴 고민과 불안한 마음도 어쩌면 꿈을 찾기 위해
겪어야 하는, 소중한 흔들림의 과정이 아닐까?

- 26p

내가 왜 용기를 못 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고,
그렇게 움츠러드는 나 자신에게 자꾸자꾸 말을 걸어 줘.

쓸데없는 걱정을 지혜와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

- 56p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싫지만 좀 기다려 보자.’

‘신경 쓰면 더 심해진대. 마음 편하게 지내보자.’ 하고 말이야.

몸이 아프면 기분도 좋지 않은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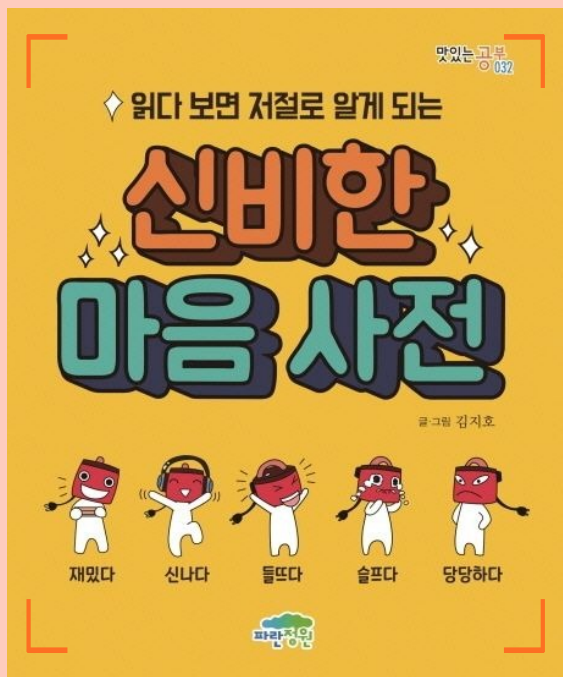
계속 짜증만 내면 몸속 세포들이 더 신경질을 낼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

- 126p

출처: 교보문고





신비한 마음 사전

김지호

청구기호: 아 181.7 김79ㅅ

넌 너의 마음이 보이니?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적어요. 또, 아쉽게도 긍정적인 감정 언어보다 부정적인 감정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감정이든 나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표현한다는 건 아주 칭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린 더욱 노력해야 해요. 난 지금 어떤 감정이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 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더욱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친구들도 ‘나라면 이럴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통해 그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출처: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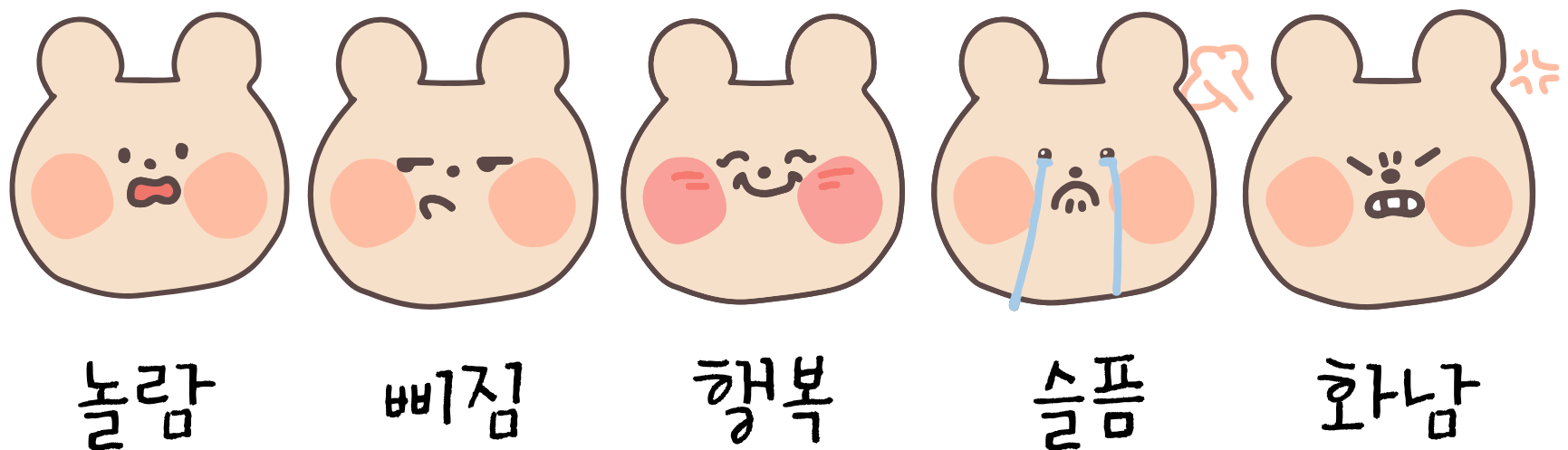


책 속으로

★내 숨겨진 감정을 찾아라★

- 1단계 난 지금 어떤 감정이지? (질문하기)
- 2단계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분석하기)
- 3단계 아하, 이런 이유였구나. (알아차리기)
- 4단계 내 기분은 ㅇㅇㅇ해. (말로 표현하기)

친구들의 일상 이야기에 100가지 감정을 담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너와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출처: 교보문고





나를 닮은 친구 A.I.

오서하

청구기호: 아 813.8 오53ㄴ

AI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AI,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에어컨, 자동차 등 우리 주변엔 우리를 대신할 인공 지능 로봇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AI 로봇은 인간의 신체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사람의 두뇌보다 명석하지만 감정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8개의 AI는 다릅니다.

인간의 감정인 희로애락을 갖고 싶은 AI 로봇 친구들의 8개의 진솔한 이야기는 인간을 닮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 진한 감동을 줍니다

출처: 교보문고



책 속으로

<꿈 저장소>

재민이의 숙제 도우미 로봇인 AI 로디릭은 어느 날 우연히 재민이의 일기를 훔쳐보다 재민이가 꿈을 잃어버려 로봇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디릭은 자신도 혹시 꿈을 잃어버린 탓에 로봇이 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로디릭은 꿈을 찾고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재민이 몰래 꿈 저장소를 잠입합니다.

<이름은 있어야 해>

크리스마스이브, 거리에 서있는 눈사람 로봇에겐 이름이 없어요. 청소 로봇과 인간 미애가 이름을 지어주지만 해마다 수천 개씩 만들어지는 눈사람 로봇에게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새끼를 낳으려는 길고양이를 발견한 두 로봇은 고양이의 출산을 도우며 새끼 고양이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는데....

이 외에 <내 꿈은 부모>, <동키의 웃음>, <우주 삼총사>, <내 친구 통돌이>, <용기의 가면>, <마루의 그림> 등 총 8편의 AI에 관한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교보문고

